‘랩과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타난 정형구적 반복과 표현체계의 관계에 대한 고찰’

2011학번 영어영문학과 오 병 주

연구주제- 오늘날 랩에서 보여지는 정형구적인 반복과 펀치라인이 일차적 구술문화가 쓰이던 시기의 정형구적 반복, 육각운과 관계가 있는가?

Ⅰ. 서론

월터 옹의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에서 우리는 쓰기 즉 스크립트가 존재하기 이전에 일차적 구술문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수업시간에 발표와 토론을 통해 파악해보았다. 그 중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로 대표되는 이 두 서사시가 정형구적인 요소가 사용과 더불어 기억술을 통해 구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쓰기문화의 영향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단순히 책으로 쓰여진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평소에 즐겨듣고 관심을 갖던 랩이라는 음악의 장르 역시 일정한 체계를 통해 반복과 정형구적인 요소를 분명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오르게 되었다. 과연 일차적 구술문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랩과 일차적 구술문화에서 나타나던 정형구적 요소가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다.

이러한 궁금증을 토대로 랩이라는 음악의 요소가 단순히 흑인문화의 한 부분으로 의미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쓰기문화가 확고히 자리잡은 오늘날 일차적 구술문화의 영향력이 아직 우리 주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물론 랩이라는 것은 가사를 글로서 적은 후 그것을 입으로 부르는 형태로서 일차적 구술문화와의 연관성은 없을 것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랩과 서사시에서 나타나는 정형구적인 반복, 육각운, 펀치라인 등의 체계는 우연히 유사성을 지닌다고 하기에는 분명히 의문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문자가 생겨나고 그것이 여러 지역으로 전해지면서 각기 다른 문자를 만들어내고 발전하였듯이, 서사시에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특징 역시 통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에는 시조나 판소리로 전해지고, 미국에서는 랩으로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연결고리 때문에 이번 연구주제를 살펴보는 것이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월터 J옹의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에서 언급된 부분이 있다.책에서는 정형구적 요소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구술문화에 뿌리박은 사고와 표현의 습관은 수 천년이 지난 후에도 나타났으며, 아라비아 문화나 그 밖의 지중해 문화는 아직도 정형구적인 사고와 표현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구술로 된 정형구적인 작품이 미국인에게 제공되는 것에 대해 언급한다. 이를 통해 서사시의 정형구적 반복과 표현체계가 랩으로 전달될 수 있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는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주제의 목적성과 의의를 기반으로 뒤에서는 랩의 탄생배경과 개념에 대한 정의,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먼저하고, 중심이 되는 정형구적 반복과 표현

체계의 유사성에 관한 고찰을 주로 살펴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연구주제에 대한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랩과 서사시의 개념 및 등장배경

랩(rap)은 힙합의 한 축을 이루는 음악 요소로서, 주로 각운을 이루는 말을 리듬에 맞추어 음악적으로 발성하는 것을 말한다. 랩은 말과 노래의 경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아프리카, 자메이카, 미국 등의 문화에 뿌리를 두고 1970년대 중반에 미국 뉴욕에서 처음 시작되어 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했으며, 곧 미국 전역과 다른 나라에 퍼졌다. 대체로 빠른 속도로 가사를 읊어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래퍼의 취향에 따라 느리게 읊을 수도 있다. 랩은 백인들에게 억압받던 흑인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욕구를 분출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써 발생하였는데, 백인 사회가 흑인들의 정치적, 경제적 접근을 철저히 탄압, 차단하고 유일하게 오락과 예술적 표현만을 허용했기에 탄생할 수 있는 배경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탄생의 배경으로 인하여 랩은 단순한 음악 이상의 것으로 삶과 문화, 그리고 그 속에 자리잡은 음악 사이의 경계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다. 즉, 대부분의 랩은 사회 비판적 성격을 가지고 삶과 밀착되어 있으며, 직설적이고 투쟁적이며, 감정적, 참여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점이 구술성의 특성과 매우 닮아 있다. 랩 가사의 상당부분은 ‘자기 과시’, ‘남 헐뜯기’의 기본적 틀에다가 그 사이사이에 즐겁게 놀자는 내용, 여자를 유혹하는 내용 등이 들어간다. 또한 랩 가사에는 욕설이 많다. 원래 래핑은 상대방과의 ‘시합’에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남의 실력을 깎아내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즉흥적인 랩(프리스타일)을 만들어 상대방과 대결을 하는 것은 고도의 순발력을 필요로 하므로 내용에 있어서 상투적인 어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술에서와 같은 고도의 논리성과 추상성, 일관성을 지니기 어렵다. 물론 오늘날의 랩은 대부분이 작사의 과정을 따로 거쳐서 불려진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특성을 상당부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랩의 정형구적인 반복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오늘날 세계문화의 중심적인 흐름의 기원을 살펴보면 시대적으로 가장 앞서고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이 서사시이다. 서사시는 대체로 이야기가 길고 등장인물이 많다, 줄거리가 복잡하다는 등의 인상이 있는데 이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두 작품은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서사시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서사시라면 모두 이런 특징을 보인다. 그리스 서사시만의 특징은 영감을 주는 신(무사 Muse, 아폴론 등)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 같은 인물이나 같은 물건은 늘 가튼 수식어를 붙여 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사건의 시작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고 곧장 '사태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것, 긴 목록이 자주 등장하는 것, 긴 연설이 직접 화법으로 삽입되는 특징들은 구송시(oral poetry)의 전통에서 나온 것이다. 모든 서사시가 다 이렇지는 않다. 서사시를 일정하게 반복되는 운율이 있는 이야기 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서사는 이야기이고, 시는 운율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 서사시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장단에 얹어 이야기를 전해주던 장르이다.

2. 기존 논의

이러한 두 요소의 개념을 기반으로 이번 연구주제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는 아직 다루어지

지 않고 있다. 물론 판소리나 시조의 특성과 일차적 구술문화의 특성과 관련한 논문은 다양하지만 랩이라는 음악의 장르라는 성격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술성의 측면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연구주제와 관련한 자료조사 중 독일의 바스 뵈처라는 작가가 1990년대 초 랩과 시를 접목시킨 '랩포이트리'를 발표한 기록이 있으나, 서사시와 랩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논의로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3. 랩과 서사시의 형태적 유사성

① 정형구적 반복 및 구술문화적 특성(집합적)

이번 연구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랩에서 보여지는 반복과 라임이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등장하는 정형구적 반복, 육각운과 어떻게 유사성을 보이는가이다. 먼저 랩의 경우, 각운이나 두운에 맞춰 운율을 더하는 라임이 기본적인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내뱉는 말이 아니라 랩의 가사 속 체계에서 끝 글자를 같게 하는 반복을 만들어낸다. 또한 단어 앞에 꾸며주는 형용사들을 포함하여 운율과 반복을 한층 극대화시킨다. 이러한 특징은 예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 아래는 미국의 랩퍼 에미넴의 "Lose yourself"중 일부이다.

*He's **chokin**, how everybody's **jokin** now*
*The soul's es**caping**, through this hole that it's **gaping***
This world is mine for the taking
Make me king, as we move toward a, new world order
A normal life is borin, but superstardom's close to post mortar
*It only grows **harder**, only grows **hotter***
He blows us all over these hoes is all on him
Coast to coast shows, he's known as the globetrotter
***Lonely** roads, God only knows*
He's grown farther from home, he's no father
He goes home and barely knows his own daughter
But hold your nose cuz here goes the cold water
His hoes don't want him no mo, he's cold product
They moved on to the next schmoe who flows
He nose dove and sold nada
*So, the **soap** opera is told and unfolds*
I suppose it's old potna, but the beat goes on....-

위의 가사를 보면 반복되는 형태의 가사가 등장하면서 라임에 맞추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lonely roads', 'soap opera'를 통해 구술문화의 분석적이기 보다는 집합적인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통해서 역시 구술문화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호메로스 서사시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반복적인 구절들, 정형구가 많다는 점이다. 가령 가만히 앉아있는 아킬레우스는 항상 발이 빠른 것으로 묘사되고, 육지에 정박한 배에

도 빠르다는 말은 빼놓지 않는다. 심지어 신들은 무서워 떨 때 조차도 행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래 글은 '일리아드' 내용 중 일부이다.

*'이야기의 실마리는 **성난** 사나이에게서부터 풀린다.*
*펠레우스가의 영주 아킬레우스의 **쓰라린** 유한이 아카이아 군에게 수많은 난관을 가져온다. **굳센** 용사들을 황천길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존귀한 영웅들로 하여금 개밥이 되게 하고, 뭇 새들의 성찬이 되게 한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제우스의 뜻은 변함없이 움직여간다. 우선 아트레우스족의 왕 아가멤논 대왕과 아킬레우스 영주의 언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느 신이 두 사람 사이에 불화를 일으켜놓았는가? 제우스와 레토의 아들 아폴론의 짓이니, 아가멤논이 아폴론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부분은 책으로 쓰여진 내용이기 때문에 낭송되었던 당시의 구술성을 정확히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억을 위해 정형구적인 반복이 랩에서와 같이 사용되었으며, 또한 윗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성난, 힘센과 같은 구술문화의 집합적인 특성을 마찬가지로 엿볼 수 있다.

② 육각운과 랩의 플로우(flow)

한편, 일차적 구술문화에서 낭송된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기원과 형성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추측들이 존재하고 있다. 호메로스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점, 시들의 진위 여부 등이 호메로스의 서사시와 관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육각운이라는 리듬체계 속에서 정형구적인 요소의 반복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다. 그의 서사시에서는 한 행이 여섯 개의 리듬으로 나뉘어 나타나는데 이를 육각운이라 말한다. 육각운은 라틴어나 그리스어로 쓰인 서사시나 교훈시에서 두루 나타났는데, 이러한 육각운에서 '타–안타타'라는 리듬이 수없이 반복된다. 특히 각행 마지막의 여섯 번째 음절은 타~안, 타~안이라는 리듬이 반복된다. 이러한 반복은 오늘날 랩에서 나타나는 put your hands up 이나 what's up이라는 표현이 랩의 뒷부분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모습과 유사한 가능성을 내포한다. 특히 이러한 리듬의 반복은 랩퍼 Masta Wu의 '이리와바(come here)'에서 '아에아에아 아에에아에아' 리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된다. 반복과 체계에서의 유사성을 통해 이러한 예시들을 명확하게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물론 구체적으로 쓰기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 즉 일차적 구술문화만이 존재하던 시절에 기록되지 않은 말을 암송하기 위해서는 정형구가 필요하였다. 이에 대해 하블로크 역시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정형구적인 사고의 조립에 의지했기 때문에 획득된 지식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반복해야한다"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지금의 랩에서 나타나는 반복은 서사시에 나타나는 반복과는 생성요인이 다를 것이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다루는 중점적 사항은 확실히 연관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서 보여지는 정형구적인 반복과 리듬이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다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자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일차적 구술문화로서의 호메로스의 서사시와 랩은 생성된 목적에서 분명히 다르지만 표현되는 양상은 위에서 살펴보았던 정형구적인 반복과 표현체계의 반복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Ⅲ. 결론

이제까지 살펴본 랩과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의 형태적 유사성은 분명 통시적으로 많은 시간의 간격이 존재하지만, 일차적 구술문화에서의 정형구적 반복이 오늘날 미국의 랩으로 전해 졌을 것이라는 출발에서부터 랩에서 보여지는 라임과 리듬의 반복, 집합적인 정형구적 특성 등과 서사시에서의 육각운과 정형구를 살펴보는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었다. 물론 이번 연구주제였던 각각의 연관성에 대한 측면에서 확실히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기에는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기존의 다루어진 논의들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이번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의 경우 당시의 구술문화적 특성을 정확히 보존한 것은 당연히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정형구적 반복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를 확보하는 것에 한계를 지녔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으로는 랩이 일차적 구술문화가 존재했던 시기보다 더 전에 원시 인류에게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이는 하버드대 미튼 교수의 "춤추는 네안데르탈인"에서 네안데르탈인은 랩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리듬감을 갖춘 말을 구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새로운 측면의 접근방식이었다.

중요한 것은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기억을 위해 그리고 운율을 맞추기 위한 필요의 목적으로 나타난 것과 음악의 장르로서 개인의 감정이나 의사를 리듬감 있게 전달하려는 것에서 동기의 차이는 있으나 구술문화는 쓰기문화가 자리잡은 이 시점에서 쓰기가 존재하지 않고 일차적 구술문화만이 존재하던 시기와 비교하여 영향력이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으나, 말을 하는 인간에게 구술문화는 항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참고문헌

김요한. 2005. 「랩으로 부르는 시」. 『세계문학비교학회』. 11: 55-57

월터 J옹. 1982.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42, 46-47

호메로스. 김준배 글. 「일리아드」. 『채우리』. 38-55

Steven Mitten. 2008.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Singing Neanderthals)」. 『뿌리와이파리』. 82-109